

취업정신장애인의 직무스트레스와 삶의 질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최희철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Moderating Effect of the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Quality of Life of Employees with Mentally Disabled

Hee-Chul Choi
Kangnam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취업한 정신장애인의 직무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봄으로써 이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삶의 질 문제에 관한 예방적 차원의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서울과 경기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사례관리를 받고 있으며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113명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기관의 담당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 자기기입방식에 의해 우편 조사와 방문조사를 병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취업장애인이 지각한 직무스트레스는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직무스트레스와 삶의 질 간에 회복탄력성이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통하여, 취업정신장애인의 회복탄력성을 내적인 대처자원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과 직무스트레스를 낮추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포괄적인 개입방법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취업정신장애인, 직무스트레스, 삶의 질, 회복탄력성, 조절효과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help to preparation of preventive intervention plans on job stress and the quality of life by investigating how resilience affects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the quality of life of the employed mentally disabled. As for the methods, this study collected materials by combining mail survey and visiting survey through a self-administered method targeting 113 mentally disabled who have been cared at community psychiatric rehabilitation centers in Seoul and Gyeonggi, and been employed for more than 3 months after the researcher of this study gave explanation to and asked for consent to the staffs of the centers. Study results show that job stress perceived by the employed-disabled exerts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quality of life, and resilience have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between job stress and the quality of life. Through the above results, this study showed a possibility to apply resilience of the employed mentally disabled as an internal countermeasure, suggesting a comprehensive intervention plan for lowering job stres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Key Words : The employed mentally disabled, Job Stress, Quality of life, Resilience, Moderating effect

Received 30 December 2016, Revised 1 February 2017
Accepted 20 February 2017, Published 28 February 2017
Corresponding Author: Hee Chul, Choi
(Dept. of Kangnam University)
Email: pride838@kangnam.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최근의 정신장애인을 위한 재활의 목표는 단순히 증상의 관리나 재발방지, 기능의 향상 차원을 넘어서 삶의 질 향상을 중심으로 한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28, 1]. 미국의 NIMH(국립정신보건연구원)에서도 만성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효과에 대한 평가에서 삶의 질이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였다[29, 2]. 정신보건 실천현장에서도 정신장애인 재활의 최종목표로서 당사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의 하나로 직업재활을 들 수 있다. 직업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통합하여 안정된 삶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수입에 의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사회적응과 기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하며, 일을 통해 정신과 증상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3]. 실제 직업재활에 참여한 정신장애인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삶의 질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4, 5, 6].

대다수의 정신장애인들은 질병의 특성상 병원 퇴원 후 정신과 잔류증상과 함께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면서 직업을 갖고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취업정신장애인들은 대인관계 및 사회적 기술의 미숙함, 지역사회에서의 편견과 차별적 대우 등으로 인해 비장애인보다 실제 더 많은 직무스트레스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으며[7, 8, 9], 고용형태와 급여에 따라 직무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0].

곧 취업한 정신장애인들이 당면하는 직무스트레스는 직업안정성의 상실감, 불안감을 갖게 하여 근로의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 스트레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는 차이가 있다[11]. Lazarus와 Folkman[30]은 스트레스 상호작용모델을 통해서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사건에 개인이 얼마나 해로운 것으로 인지하고 스스로 통제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모든 취업한 정신장애인이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지 못해 삶의 질이 낮아진다고 느끼는 것은 아니다. 어려운 근무 환경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도록 돕는 요인은 삶의 질 문제의 수준을 경감시킬 수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요인들로는 개인의 특성과 회복탄력성,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관리전략 등의 내적 요인들과 물질적 자원, 사회적 지지 등의 환경적 요인 등이 제시된다[12, 30, 31, 32].

본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와 삶의 질 간의 영향관계에서 회복탄력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여러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의 영향을 조절하여 그 영향을 경감시키거나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변인들 중의 하나가 개인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라 할 수 있다.

회복탄력성은 부정적인 상황에 직면하여 이를 극복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위험하고 역경을 겪는 상황에서도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이라고 정의된다[33, 34]. 이러한 회복탄력성은 개인에게 내적 및 외적인 위협과 보호과정 간에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서 생활상의 부정적인 사건의 영향을 수정할 수 있게 해주는 요인이 된다[35]. 결국 회복탄력성은 잠재적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개인의 특성이면서 역경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다[13]. 최근에는 회복탄력성의 예방기능에 주목한 연구들이 많다[36]. 김평호와 이유리[14]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예방과 치료적 차원에서 회복탄력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취업한 정신장애인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문제를 살펴봄에서 있어 회복탄력성을 고려하는 것은 이들의 직무스트레스를 낮추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방적 차원에서 포괄적인 개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지금까지 스트레스, 탄력성, 삶의 질과 관련된 문헌들을 찾아보면, 안미숙[15]은 직장인 44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장인이 직무스트레스를 높게 인식하더라도 탄력성이 높으면 삶의 질을 어느 정도 완충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김노은[16]의 대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탄력성은 스트레스와 삶의 질 간의 관계에 부분매개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직무스트레스와 삶의 질과의 관계에 대해서, 전은숙

등[17] 은 병원종사자 36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는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직무스트레스 요인 중 근무형태와 조직적 관리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제시하였다. 소방공무원 1,300명을 대상으로 한 윤명숙과 김성혜[18] 의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는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직무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상임[19] 은 병원간호사 15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삶의 질에 부적적인 영향을 미치며,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회복탄력성과 삶의 질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도시 거주 노인 475명을 대상으로 한 최서규[20] 의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은 삶의 질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회복탄력성의 요인 중 자기조절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을 높게 인식하는 노인은 삶의 질이 높다고 하였다.

이소영[21] 은 소방공무원 27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소방공무원의 회복탄력성은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하였다. 허부영[22] 은 유방암 진단을 받은 병원 외래환자 12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유방암 환자가 인식한 회복탄력성은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회복탄력성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 수준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취업한 정신장애인의 직무스트레스 및 삶의 질에 관한 연구들은 직무스트레스의 대처방식, 삶의 질

의 영향요인 그리고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6, 7, 8, 10, 11, 23]. 그러나 아직까지 회복탄력성을 고려하여 취업한 정신장애인의 직무스트레스와 삶의 질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없는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와 필요성을 반영하기 위해 취업정신장애인의 직무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영향관계를 알아보고, 직무스트레스와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조사 대상

본 조사대상은 서울과 경기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사례관리를 받고 있으며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비확률표집방법 중 유의표집 방식에 의해 선정하였다. 조사는 2015년 1월 5일부터 2월 13일까지 실시되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본인이 자기기입방식에 의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의 진행은 사전에 각 기관의 시설장 및 직업재활 담당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의 내용을 설명하여 동의를 구한 후, 우편조사와 방문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자료입력과 분석과정에서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 26부를 제외하고 실제 결과분석에는 총 113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N=113)

Variables	Categories	Frequency	%
gender	male	74	65.5
	female	39	34.5
age	uner thirty	18	15.9
	more than thirty under forty	34	30.1
	more than forty under fifty	39	34.5
	more than fifty	22	19.5
	Mean 40.45 (S.D 9.54)		
education	less than Junior high school graduation	8	7.1
	less than high school graduation	59	52.2
	more than college	41	36.3
	more than graduate school graduation	5	4.4
monthly income	under fifty	38	33.6
	more than fifty under one hundred	39	34.5
	more than one hundred	36	31.9
	Mean 75.77 (S.D 50.10)		

2.2 조사도구

2.2.1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장세진 등[24]에 의해 개발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KOS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물리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성 결여, 직무불안정, 관계갈등,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등 3개 하위영역의 총 4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765로 나타났다.

2.2.2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Reivich와 Shattel[37]에 의해 고안되고 김주환[25]이 수정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53문항으로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 등의 3개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849로 나타났다.

2.2.3 삶의 질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세계보건기구(WHO) 삶의 질 간편형 척도(WHOQOL-BREF)를 민성길 등[26]이 국내에서 표준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신체적 영역, 심리적 영역, 사회적 관계 영역, 환경 등 4개 영역에서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845로 나타났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전반적인 응답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변인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조사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회복탄력성의 조절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직무스트레스, 삶의 질, 회복탄력성의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과 최대값을 <Table 2>와 같이 알아보았다.

먼저 취업정신장애인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은 4점 만점에 2.21로 조사되었으며, 직무스트레스 하위영역별 비교에서는 '직무자율성 결여'가 2.83으로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밝혀졌다. 그 뒤를 '직무불안정' 2.39, '조직체계' 2.17의 순으로 직무스트레스에 노출되는 영역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삶의 질 수준은 5점 만점에 3.19로 조사되었으며, 회복탄력성을 3개 하위요인인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긍정성 3.14, 자기조절능력 3.13, 대인관계능력 2.97의 순으로 조사되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key variables

Variables	Mean	S.D	Mnimum	Maximum	Likert
Job Stress Total	2.21	0.30	1.35	3.05	4Point Scale
physical environment	1.94	0.61	1.00	4.00	
job requirement	2.07	0.50	1.00	3.38	
lack of job autonomy	2.83	0.48	1.60	4.00	
job instability	2.39	0.33	1.50	3.50	
relationship conflict	2.03	0.54	1.00	3.50	
organization system	2.17	0.50	1.00	3.71	
improper compensation	2.09	0.47	1.00	3.50	
work culture	2.01	0.52	1.00	3.25	
Quality of Life	3.19	0.48	1.48	4.40	5Point Scale
Resilience Total	3.08	0.30	2.21	4.29	
self-regulation ability	3.13	0.34	1.67	4.00	
interpersonal skill	2.97	0.37	2.00	4.20	
affirmative	3.14	0.42	2.12	4.29	

있고, 전체 회복탄력성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08로 조사되었다.

3.2 주요 변수간 상관관계

본 연구모형의 분석에 앞서 주요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한 결과, 0.8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는 없었으며, 종속변수인 삶의 질은 직무스트레스와 부적상관관계를, 회복탄력성과는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취업정신장애인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낮아지며,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3.3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검증

먼저 취업정신장애인의 직무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

의 일반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그 다음 독립변수인 직무스트레스, 조절변수인 회복탄력성과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설정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4>는 통제변수와 직무스트레스를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뒤(모델 1), 조절변수인 회복탄력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모델 2), 직무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이다(모델 3).

먼저 모델 1은 취업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어진 통제변수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과 독립변수인 직무스트레스를 투입하였다. 연구결과, 모델 1에 투입한 변수들 중 직무스트레스($\beta=-5.983$ $p<.001$)를 제외하고는 삶의 질에 모든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는 조절변수를 모델 1에 추가로 투입한 모형으로 회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related variables

Variables	1	2	3	4	5	6	7
1. gender	1						
2. age	.079	1					
3. education	.078	-.020	1				
4. income	.231*	.064	-.028	1			
5. job stress	-.169	.018	-.129	.010	1		
6. resilience	.134	-.033	.023	.085	-.156	1	
7. Quality of Life	.273**	.054	.056	.239*	-.559**	.464**	1

* $p<.05$, ** $p<.01$, *** $p<.001$

<Table 4> Moderator effect verification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control variable	(상수)	4.854		10.231	3.209		5.554	8.652		3.374
	gender	.115	.121	1.278	.087	.092	1.073	.109	.115	1.358
	age	.006	.007	.076	.029	.033	.399	.053	.059	.723
	education	-.047	-.051	-.558	-.040	-.043	-.522	-.036	-.039	-.480
	income	.096	.172	1.836	.082	.147	1.730	.049	.087	.997
dependent variable	job stress	-.794	-.554	-5.983***	-.776	-.541	-6.457***	-3.313	-2.311	-2.827**
moderator variable	resilience				.515	.351	4.253***	-1.220	-.830	-1.513
interaction variable	job stress × resilience							.810	2.094	2.176*
R ²		.374			.494			.524		
Adj. R ²		.333			.454			.480		
R ² Change		.374			.120			.030		
F		9.189***			12.382***			11.811***		

* $p<.05$, ** $p<.01$, *** $p<.001$

귀모형의 설명력은 12.0% 증가하였고(R^2 Change =.120), 모델 전체의 설명력은 49.4%로 취업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2.382$, $R^2=.494$). 각각의 변수들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직무스트레스($\beta=-.541$, $p<.001$)와 회복탄력성($\beta=.351$, $p<.001$)이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3에서는 직무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의 상호작용을 모델 2에 추가로 투입하여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모델 3에서는 회귀모형의 3.0%가 증가하였고(R^2 Change =.030), 모델 3의 전체설명력은 52.4%로 삶의 질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1.811$, $R^2=.524$). 모델 3에서는 직무스트레스($\beta=-2.311$, $p<.01$)가 삶의 질을 유의미하게 가장 잘 예측하는 변수로 나타났다. 상호작용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직무스트레스× 회복탄력성은 삶의 질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094$, $p<.05$).

본 연구결과를 통해 취업정신장애인의 회복탄력성이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개인의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을 일정부분 조절 또는 완충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취업정신장애인이 직무스트레스를 높게 인식하더라도 회복탄력성이 높으면 삶의 질의 수준을 일정부분 조절하거나 완충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곧 취업정신장애인들에게 회복탄력성을 내적 대처자원으로 적용해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점과 정신보건 현장에서 취업정신장애인에 대한 직무스트레스를 낮추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취업정신장애인의 직무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직무스트레스와 삶의 질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취업정신장애인의 통제변수와 직무스트레스, 회복탄력성 그리고 직무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의 상호작용변수를 모두 투입한 모델3에서는 직무스트레스($t=-2.827$, $p<.01$)가 삶의 질을 유의미하게 잘 예측하는

변수로 나타났다. 모델3에서는 회귀모형의 3.0%가 증가하였고(R^2 Change =.030), 모델3의 전체설명력은 52.4%로 삶의 질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1.811$, $R^2=.524$). 상호작용변수의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직무스트레스× 회복탄력성을 투입한 결과, 상호작용변수는 삶의 질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t=2.176$, $p<.05$) 각 모델의 전체 설명력을 보면, 모델1은 37.4%, 모델2는 49.4%, 모델은 52.4%로 계속 증가하면서 취업정신장애인의 직무스트레스와 삶의 질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정신장애인이 직무스트레스를 높게 인식하더라도 회복탄력성이 높으면 삶의 질의 수준을 일정부분 조절하거나 완충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함의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회복탄력성이 직무스트레스와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조절 혹은 완충효과를 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더라도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이들의 영향을 덜 받으며 삶에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Lazarus와 Folkman[30] 은 사람들은 스트레스원(stressor)을 경험하게 되는데, 스트레스원이 있더라도 자신이 그것을 스트레스로 평가하지 않거나 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경우에는 스트레스로 경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장휘숙[27] 이 높은 탄력성을 갖고 있는 개인들은 정서적인 안정이 되어 있으며 인지적, 사회적 기술을 갖추어 스트레스의 상황에서 잘 적응한다고 밝힌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회복탄력성의 중요성이 입증되었으므로, 사회복지시설과 정신보건증진센터에서는 직장생활의 시작과 유지를 위한 특화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곧 이들의 내적자원으로서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개인의 장단점과 관심영역, 잠재력 및 개인특성 등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이나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사례관리자들은 사업체에서 이들의 주체성과 자기효능감, 긍정적 가치관 등을 불어넣어 근로의욕을 고취하며, 불확실한 환경 속에 독립적으로 자신의 직무를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즉, 개인의

특성에 잘 부합되고 개인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직무지도와 배치가 필요하며, 동시에 스스로 직무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그러한 모습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회복탄력성의 고취는 사업체의 취업정신장애인 모두에게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로의 전환을 가져와 이들의 회복탄력성은 더 높은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궁극적인 개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취업정신장애인의 직무스트레스를 낮추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보다 제도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취업정신장애인이 개인적 수준에서 직무스트레스를 인식한다 하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기업복지의 분야에서 최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 EAP)을 제도적 차원에서 이들에게 알맞게 변화시켜 제공하는 방법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업무의 효율성 증진은 물론 취업정신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취업상담 및 컨설팅 제공, 코칭 서비스 연계 등의 보다 구체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지역 일부의 유의표집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연구의 결과를 전체로 일반화하는데 한계를 갖는다. 또한 회복탄력성이 갖는 조절효과에 있어 다양한 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후속 연구로 정신장애인의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위한 효과성 연구가 진행되길 바란다.

REFERENCES

- [1] Seo, H.S, Kim, C.H, Lee, H.S, Jeong, Y.C, Choi, Y.H, Huh, S.Y., Lee, C. "Quality of Life and Psychopathology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Vol.40, No.6. pp.1122-1131, 2002.
- [2] Shin, S.H, Kim, Y.H, Kim, J.S. "Effects of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 on the Family Support and Quality of Life of Persons with Serious Mental Illness"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Vol.32, No.2, pp.113-119. 2006.
- [3] Choi, H.C. "Vocational Rehabilitation: Theory and Practice of Mental Health of Social Work". Yangseowon. 2012.
- [4] Hwang, T.Y, Kim, J.H, Han, E.S., Lee, C.S. "The Effect of Vocational Program on the Quality of Life Program on the Quality of Life of the Chronic Schizophrenia".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Vol.37, No.6, 1998.
- [5] Park, S.C. "The Study on the Quality of Life of the Mental Disorder who Participate in the Vocational ehabilitation Program". Master's Thesis, Jeonbuk Univejrsity Graduate School. 2004.
- [6] Kim, J.S. "Factors Affecting Quality of Life of the Employed Mentally Disabled ".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08.
- [7] Kim, D.Y. "A Study on the Effects of Job Stress on Job Maintenance of Employees with mentaliy disabked".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03.
- [8] Jeon, Y.J., "A Case Study on the Job Stress and Coping Styles of Workers with Mental Disorder".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05.
- [9] Park, K.O. "A Study on the Process of Coping with Job Stress for the Mentally Disabled with Working Experience.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09.
- [10] Byun, E.K. Yoon, S.J. "Factors Influencing Job Stress in Work Experience of employees with Mentally Disabled".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Vol.19, No.4, pp.447-456, 2010.
- [11] Kim, J.H. "Relations of Perceived Stress, Cognitive Set, and Coping Behaviors to Depression". Docto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1987.
- [12] Gong, S.J., Lee, E.H. "Mediation Effect of Coping Between Life Stress and Depression in Female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plogy. Vol.11, No.1. pp.21-40. 2006.
- [13] Shin, W.U. Choi, M.A., Kim J.H. "The Effects of

- the Three Resilience Factors on Problematic Online Game Uses". *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Vol.26, No.3, pp.43-81, 2009.
- [14] Kim, P.H., Lee, Y.R., "The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traumatic Stress and Mental Health of Social Worker who Experienced Traumatic Ev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4, No.9, pp.545-552. 2016.
- [15] An, M.S. "The Moder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alaried Employees' Daily Stress and the Quality of Life". Master's Thesis, Chonb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0.
- [16] Kim, N.E. "The Relationships among Stress, Resilience, and Quality of Life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Vol. 13, No. 4, pp.1-19, 2011.
- [17] Jeon, E.S. Lee, K.S. Lee, S.Y. Yu, J.H., Hong, A.R.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Quality of Life for Hospital Workers by Type of Employment".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Vol.21, No.1, pp.28-37, 2009.
- [18] Yoon, M.S., Kim, S.H.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between the Relationship Job Stress and Quality of Life among Firefighters". *Mental Health & Social Work*, Vol.42, No.2, pp.5-34, 2014.
- [19] Woo, S. I. "Job Stress of Clinical Nurses the Impact on Mental Health and Quality of Life", Master's Thesis, Han Y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5.
- [20] Choi, S.G. "A Study on the Impact of Resilience on the Quality of Life for the Senior Citizens and the Inter-Mediated Effects of the Social Participation and Deperession". Doctor's Thesis, Thesis, Han 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6.
- [21] Lee, S.Y. "A Study on the Effects of PTSD and Quality of Life among Firefighters".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6.
- [22] Ha, B.Y., "Effect of Resilienc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on the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Breast Cancer". Master's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4.
- [23] Park, J.Y. "A Comparetive Study on Quality of Life and Self-Esteem with Work Status in Mentally Handicapped Persons".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03.
- [24] Jang, S.J., etal. "The Korean Verson of Job Stress, the Development and Standardization of Measurement Tools". *The Korean Society of the Industry Medicine*, Vol.17, No.4, pp.297-317, 2005.
- [25] Kim, J. H., "Resilience: A Pleasant Secret that Turns Trials into Good Luck". wisdomhouse. 2011.
- [26] Min, S.G. Lee, C.I. Kim, G.I. S, S.Y., Kim, D.K. "Development of Korean Version of WHO Quality of Life Scale Abbreviated Version(WHOQOL-BREF)".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Vol. 39, No. 3, pp.571-579, 2000.
- [27] Jang, H.S. "Resilience as a Factor Interrupting Psychological Disorder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17, No.4, pp.113-127, 2001.
- [28] Hegeman, B, M. "Functioning in Schizophrenia and Schizoffective Disorder: Quality of Life Symptom Presentation Language Production and Neurocognitive Abilities" *Psychology*. 2002.
- [29] Simmons, S. "Quality of life in community mental health care -A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Vol.31, pp.183-193, 1994.
- [30] Lazarus, R. S., Folkman, S.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1994.
- [31] Beasley M, Thompson T., Davidson J. "Resilience in Response to Life Stress: the Effects of Coping Style and Cognitive Hardines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34, pp.77 - 95, 2003.
- [32] Hess, C. R., Papas, M. A., Black, M. M. "Resilience among African American Adolescent Mothers: Predictors of Positive Parenting in Early Infancy".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Vol. 27, No. 2, pp.619-629, 2002.
- [33] Masten, A. S., Best, K. M., Garmezy, N. "Resilience and development: Contributions from the study of children who overcome adversity". *Development*

- and Psychopathology, Vol. 2, pp.425-444. 1990.
- [34] Olsson, C.A, Bond, L, Burns, J.M, Vella-Brodick, D.A, Sawyer, S.M. "Adolescent Resilience: A Concept Analysis". Journal of Adolescence, Vol. 26, pp.1-11, 2003.
- [35] Rutter, M. "Resilience in the Face of Adversity: Protective Factors and Resistance to Psychiatric Disorder",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Vol 147, pp.598-611, 1985.
- [36] Benard, B. "Fostering Resiliency in Kids". Educational Leadership, Vol. 51, No. 3. pp.44-48, 1993.
- [37] Reivich, K., Shatte, A. "Penn Resilience Training for College Students: Leader's Guide and Participant's Guid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Pennsylvania. 2002.

최 희 철(Choi, Hee Chul)



- 1995년 8월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석사)
- 2009년 8월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관심분야 : 정신보건사회복지, 정신건강
- E-Mail : pride838@kangnam.ac.kr